

# 삼성전자 노조 “파업” 전격 선언… 창사 이래 처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이 진행된다면 삼성전자 창립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전삼노는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며 “모든 책임은 노조를 무시하는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1차 파업 지침을 통해 6월7일 노조원 전체에게 연차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며 24시간 농성 투쟁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전삼노는 단계적으로 파업 단계를 밟아 총파업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4월8일 임금 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위해 쟁의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타격이 우려됐으나 전삼노는 평화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평화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8차 교섭 결렬 이후 전삼노는 “평화적 외침 단계를 넘어 또 다른 방향의 투쟁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현재 전삼노는 단체 연차 사용 이상의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삼노 노조원 2만8000명의 투쟁 수위가 높아진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도 타격이 상당

내달 7일 전 노조원 연차… 24시간 농성·총파업 확대  
민주노총에 공식 지원 요구… 노조 정치화에 우려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진행된 8차 교섭은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진통을 겪었다. 전삼노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 교섭 위원 2명을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이를 거부했고 노조가 교섭장을 떠났다. 이후 조율 과정을 거쳐 교섭이 재개됐으나 사측 교섭 위원 2명에 대한 임장 대립으로 교섭이 오갔으며 교섭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측이 교섭장을 이탈했다.

전삼노는 4월1일 경기 화성사업장 부품 연구동(DSR) 항의 방문 당시 사측 인원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노조위원장의 진입을 막으면서 노조위원장이 부상당했고 당시 노조위원장을 다치게 한 2명이 교섭 위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해당 위원을 배제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삼노는 “사측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안전을 가져오지 않고 시간 끌기 식의 행태만 보였다”며 “교섭을 진행하다가 서초에

서 반려했다는 말만을 남긴 채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는 등 노조와의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 내부에서 전삼노 활동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삼노가 17일 진행된 2차 집회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을 포함한 외부 노동계 인원 200여 명이 참가한 것과 전삼노가 민주노총에 지원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며 전삼노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순영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여해 연대 발언을 했다.

삼성 5개 계열사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초기업 노조)은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타 노조의 자주권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초기업 노조에서는 최대한 인내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상급단체를 통한 조직화와 위력 강화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며 “노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진정 삼성 직원들을 위하는 교섭에 집중하고 노사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초기업 노조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종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찬반 가열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기대  
입주 까다롭고 비용만 증가



인천항만

연합뉴스

인천항 일대에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일대에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신규 지정 대상지로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 7000㎡)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 3000㎡) 등 190만㎡를 검토했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

인천해수청은 지속해서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인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여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에 임대료 인하, 관세 유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는 1㎡당 1389~1964원으로 광양항(258원), 부산항(482원), 평택당진항(700원) 자유무역지역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시민단체의 주장에 신항 배후단지 개발업체 주주사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조·유통 업체들이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50%를 차지해야 한다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비관세 지역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는 철조망 등 보안시설과 통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화물 반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 FEEOC 규정, 분리막 업계 ‘호재’ 될 수도… “美 진출 부담 줄었다”

IRA 분리막 원단 규제 대상 제외  
초기비용·시간 획기적으로 줄 것  
美 대선·FEEOC 해석 여부 변수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분리막 제품. SKIET

이달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최종안에서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이 규제 대상인 ‘배터리 부품’이 아닌 ‘배터리 재료’로 분류되면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미국 대선과 IRA 최종 지침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북미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비용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6일(현지 시각)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EOC) 등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한 가운데 코팅 분

리막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된 반면 코팅 단계를 거치지 않은 분리막 원단의 경우 배터리 재료로 분류됐다.

최종안에 따르면 FEEOC인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4개국 및 관련 기업으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하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설정됐다.

하지만 분리막 원단이 배터리 부품이 아

닌 배터리 재료로 분류되면서 북미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더블유씨피(WCP) 등 국내 분리막 제조 업체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분리막은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으면서 미세한 기공을 통해 리튬 이온이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분리막은 폴리에틸렌 등 원재료를 바탕으로 원단을 만들고 이 원단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코팅해 완성된다. 이에 분리막 생산 라인은 크게 제막라인과 코팅라인으로 구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안대로라면 분리막 원단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미 진출 시 코팅라인만 진출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이 경우 제막라인 구축 비용·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북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수 이베스트증권 연구원도 최근 WCP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재무부담이 완화되고 2027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추진 중인 북미 진출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WCP 관계자는 “현재 시나리오대로라면 원단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최종안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이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KIET 측은 “FEEOC 규정은 분리막 원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맞지만 북미 진출 계획이 내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단만 구축할지, 코팅만 구축할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기환 기자 gckim@skyedaily.com

## 대응제약, 모비케어로 심부전 조기 진단

대응제약이 건강검진 단계부터 부정맥 및 심부전 조기 진단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을 대대적으로 공급한다. 대응제약은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기기 ‘모비케어’와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에피아’ 공급을 통해 전국 8개 KMI 한국화학연구소(이하 KMI) 검진센터에서 AI 심전도 검사 솔루션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AI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과 심부전 검사 영역에 AI 기술을 더해 수검자의 연령 및 기저질환을 고려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진단율을 높이는 최신 의료서비스다.

모비케어는 장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심장 이상까지 조기 발견이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기기다. 기기 무게는 19g에 불과할 정도로 크기가 작고 탈부착이 간편하여 수검자의 편의성이 매우 높다.

에피아는 AI 알고리즘으로 표준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맥 등 기존에 선별이 가능한 질환 뿐만 아니라 심부전 위험도까지 예측이 가능한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다. 이를 통해 과거 대다수 환자가 심부전 전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진단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 심장 초음파 검사에 비해 경제적이고 검사 방법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박성훈 기자 psh@skyedaily.com

# 눈 나이 먹지 말고 아이클리어® 먹자!

**아이크리어® 루테인지아잔틴**  
황반의 중심부부터 주변부까지 눈 노화 집중케어!

**특별한 할인혜택!** 1644-0884  
종근당건강 공식판매센터

황반 전체에 존재하는 ‘루테인’ + 황반 중심부에 집중된 ‘지아잔틴’

노화로 인해 감소되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눈 침침 & 노화 | 황반의 중심 물질 지아잔틴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비타민 A/E/D/B1/B2/B6 | 아연  
건강기능식품  
총 15g(1캡슐당 500mg X 30캡슐)